

사립유치원 휴업 예고... 맞벌이 가정 '비상'

국·공립유치원 확대·편중 지원 정책 폐기 등 요구

18일 광주·전남 292곳·25~29일 전국 사립 90% 참여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사립유치원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각각 175개·117개 사립유치원이 휴업 동참을 결의,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사)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광주지회와 전남지회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오는 18일 하루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사립유치원은 각각 175개·117개 등 모두 292개로, 광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중순께 임시총회를 열어 전면 휴업에 동참기로 한 뒤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고 2차(25~29일) 휴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백희숙 광주지회장은 "모든 어린이는 공·사립을 떠나 평등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의 3분의 1수준에 그쳐 심한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방과후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업계는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대다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들은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5~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을 하기로 했다.

2차 휴업은 기간이 길뿐 아니라 10월 3~9일 추석 연휴로 이어져 실제 휴업이 이뤄지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보육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휴업에 앞서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연다.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단 하루만 휴업해도 문제지만 2차 휴업까지 할 경우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휴가를 낼 수도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회사원 정모(37)씨는 "유치원 휴업일에 아내가 회사를 하루 쉬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며 "휴업이 장기화하면 부모들은 막막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립유치원들이 실제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경우 학습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대처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재외동포 함께 '오매송' 2일 광주를 찾은 재외동포 대학생 200여명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태극기와 자국기를 들고 광주 프리지페스티벌 브랜드 음악인 '오매송'에 맞춰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 앞 벌초객 위협하는 '말벌·진드기'

전남 말벌 70대 벌 쏘여 사망...119구조대 하루 평균 26건 출동 울 아생진드기 물려 3명 숨지기도...야외활동 긴 옷 착용 필수

추석을 앞두고 산산 등을 찾는 벌초객이 많아지면서 말벌·진드기·썩뜨가무시 경보가 발령됐다.

3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7월~8월 사이 벌집 제거 출동건수는 각각 1325건과 1001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같은 기간에는 2725건으로 172.2%나 폭증했다. 올해에도 광주에서 발생한 벌집 제거 119구조

대 출동은 8월 말까지 1902건이나 있었으며, 이 중 기록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던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무려 1617건이 발생해 하루평균 26건의 출동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벌집제거 출동 건수는 2015년 7~8월 사이 3450건에서 2016년 1968건으로 42.9%가 감소했지만,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올해 같은 기간 4386건으로 지난해 대비 122.8% 증가했다.

말벌이 기승이 부리면서 지난 1일 오전 9시35분께 진도군 임호면 자신의 유자밭에서 일하던 이모(여·76)씨가 땅벌에 쏘여 사망했으며, 이번 주말 사이 전남에서만 10여명이 벌쏘임으로 병원을 찾았다.

특히 광주·전남소방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쏘임 피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묘철을 맞아 아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썩뜨가무시 등의 발생도 우

려되고 있다.

올해 전남에서만 12명이 아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3명이 숨졌다. SFTS는 아생진드기가 활동하는 6~10월 야외활동이 잦을 때 자주 발생하며, 치사율은 10~30%에 이른다.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썩뜨가무시 역시 대표적인 가을철 감염병으로 꼽힌다.

썩뜨가무시는 아생물류 등에 기생하는 썩뜨가무시균에 감염된 탈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 감염되며,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난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집이 있나 주변을 살피고 만약 벌집이 발견되면 선불리 자국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7 해질 18:56
달출 17:46 달짐 03:48

인디안 썸머 가을에 잠시 나타나는 더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20/29	보성	흐림	17/26
목포	흐림	20/28	순천	구름많음	19/28
여수	흐림	21/27	영광	흐림	19/28
나주	흐림	18/29	진도	흐림	18/27
완도	흐림	20/27	진주	구름많음	18/29
강진	흐림	16/28	군산	구름많음	19/28
구례	흐림	19/28	남원	구름많음	16/28
해남	흐림	18/29	속산도	흐림	20/25
장성	흐림	18/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북동~동	0.5~1.0
남부	면바다	동~남동	0.5~1.5	북동~동	0.5~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동~남동	1.0~2.5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동~남동	1.0~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32	00:57
	18:23	12:52
여수	02:01	07:48
	13:49	20:28

◇주간 날씨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21/25	22/27	22/28	19/30	18/31	19/31	20/28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파부질환	

선선한 초가을 날씨... 일교차 커

내일 비 온 뒤 당분간 맑음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광주·전남지역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갑자기 선선해지면서 공기 좋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광주의 평균 최저기온은 19.3도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21.3도보다 2도 낮은 것이다. 같은 기간 광주의 평균기온도 23.9도로 평년 24.9도보다 1도 낮았다.

기상청은 "중국대륙 상층부의 찬 공기가 유입돼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과 밤의 기온 편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8월 들어 광주지역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중간 중간 내린 비 덕분에 미세먼지가 없는 선선한 날들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관계자는 "이번 주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5~6일 비가 오고 그 밖의 날은 맑겠다"고 예보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실업급여·노령연금 여성 수급 급증

2015년 첫 남성 추월...광주 기초생활수급자 전국 3위

광주에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늘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여성재단이 발간한 2017 광주 성인지(性認知)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실업급여 남녀 수급자는 1만 8242명(50.1%)과 1만 8199명으로 여성이 43명 많았다. 여성 수가 남성 수를 추월한 것은 통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여성 기준으로 2009년 39.7%, 2011년 46.0%, 2014년 49.7% 등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에다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이 낮아 등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준 것이라고 여성재단은 설명했다.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은 2015년 기준 여성 331만9000원, 남성은 343만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 2만 3343명에서 2015년 3만56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시·도별로 광주는 대구(55.9%), 경북(55.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낮은 지역은 울산(53.9%), 경남(54.4%), 서울(54.5%) 순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017 명량대첩 축제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

9.8.금 - 9.10.일

울돌목일원

주최: 전라남도, 전남군, Jindo, 인도군 | 주관: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 후원: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